

서울 문화예술 지원비 지난해 비해 2배 늘어

📅 2008-11-26 16:35:00

서울문화재단의 내년도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공개됐다. 총액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으며 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도 3배 이상 꺾여졌다.

또 이제까지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오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과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 육성 지원사업도 서울문화재단의 몫이 됐다. 이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'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'의 하나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를 각 지역으로 이관한 결과다.

우선 서울 지역에는 총 56억원이 배정되며 서울시도 56억원을 보탠다. 여기에 기존 예산 70억원을 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82억원이다.

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는 "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진행하던 지원 업무를 통합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심사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"면서 "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한 단체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의 액수를 대폭 늘리고 혜택을 받는 단체도 700개에서 900개로 늘어날 것"이라고 말했다.

지금까지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8000만원이었지만 새로운 지원 체계에 따르면 2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단 이 금액은 한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분야에서 1억원,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원, 사후지원사업(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재공연을 지원하는 사업) 5000만원 등 분야를 나눠 지급된다.

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나 문화사업도 적극 지원한다. 예술단체를 제외한 아마추어에 한해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보조되며 커뮤니티·전문예술축제는 '시민축제지원'이란 명목으로 별도의 보조금이 나간다. 형편이 어려운 소외 계층 및 차상위계층에도 '서울희망드림지원사업'과 '희망플러스 통장' 등을 통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.

창작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예술가 양산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창작스튜디오-연희, 아트팩토리-문래·독산, 창작아카데미-신당, 남산드라

마센터, 흥대복합센터 등 6곳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.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남산창작센터, 대학로연습실, 청계창작스튜디오, 서울열린극장 창동, 서울연극센터 등 5곳이다.

/wild@fnnews.com 박하나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

[기자의 다른기사 보기](#) | [기사 맨위로](#)

Copyright © 2008 파이낸셜뉴스(주) All Rights Reserved.

[☒ 창닫기](#)